지방선거 D-9 전남지사 후보초청 토론회 광주일보·KBC 공동

인구 유출 방지·J프로젝트 공방

광주일보와 KBC는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1시간30분동안 열린우리당 서범석, 한나라당 박재순, 민주당 박준영,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 등 4명의 전남지사 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토론회는 모두 발언과 개별 질문, 후보간 상호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후보들은 한·미FTA와 인구유출, J프로젝트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구상을 내놓았다.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서범석 후보

박재순 후보

박준영 후보

박웅두 후보

◇모두발언

▲박웅두=한·미 FTA는 핵폭탄처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비가 상승하고 병원비도 배 이상 폭등하게 될 것이다. 우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민주당은 동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만이 FTA를 막아낼 수 있는 정책 정당이다.

▲박재순=전남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행정가가 (전남지사를) 맡고 있지 않은 게 문제다. 나는 많은 행정경험으로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겠다.

▲사회=해마다 3만명의 인구가 외지로 나가고 있다. 어떻게 인구를 늘릴건가.

▲박재순=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교육문제 탓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J프로젝트와 기업도시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명문고를 육성하고 실업계고교를 특성화시키겠다.

▲사회=J프로젝트 가운데 골프장 건설의 경쟁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웅두=1군 1골프장 건설 미명 하에 골프장이 난립해 많은 농지가 손실되고 하십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필요하다.

▲박준영=처음엔 국내기업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전남지역이 가치있는 땅이라는 인식이 국제 사회에 퍼져 현재 많은 기업들이 참여 중이다. 투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다.

▲박재순=중국과 일본의 대규모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영암과 해남 등 전남지역일 것이다. 투자 재원의 조달과 SOC 착공 등이 우선돼야 한다.

▲서범석=과거의 농업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안 된다. 지식산업기반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박준영→서범석=FTA타결 반대 입장은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과 다른데. 힘있는 여당 도지사 후보라는 주장과 모순 아닌가.

▲서범석=확정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

▲박웅두→박재순=전남 귀농자들의 정착률이 떨어지고 있다. 회귀촌 조성에 대해 말해달라.

▲박재순=교육의 질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 10년을 목표로 5만명의 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박준영→박재순=최근 박근혜 대표의 광주·전남 발전에 힘쓰겠다는 발언을 환영한다. 이것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인가?

▲박재순=진실성을 갖고 한나라당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박준영→박재순=영·호남간 SOC 차이가 많다. 호남이 하면 영남에도 하나 하겠다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SOC 부족에 대해 한나라당이 노력하겠나?

서범석 일자리 10만개 창출 복지 향상

박재순 공동혁신도시 교육역량 확대

지역별 1개씩 우수 고교 육성 박준영

한·미 FTA 즉시 중단해야 박웅두

▲박준영=민주당은 지난 50년동안 자유·인권·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 2년 전 도민의 선택을 받아 도지사로서 열심히 봉사해 왔다. 전남이 가난한 원인은 SOC 부족과 농업쇠퇴, 노령인구가 많은 점 때문이다. 각 지역 특색을 잘 살려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서범석=임기 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경제·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경제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다. 이것은 능력을 인정받은 유능한 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역정당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개별질문

▲사회=전남 인구유출의 원인 및 대책을 밝혀달라

▲박준영=지역별로 1개씩 우수 고교를 육성하겠다. 지난해 농어촌 대학 특례 입학을 4%로 확대한 바 있다.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지방재정 때문에 실천이 어렵지만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정부에도 도 차원에서 많은 것을 주문하고 있다.

루 1천톤 이상의 지하수가 사용되는 등 문제가 많다. 골프장 건설은 경제적 효과가 과대 포장된 반면 그 피해는 크다.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골프는 사양산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골프장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주민소환제 시행에 대한 견해는.

▲서범석=주민소환제는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주재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지방정권은 부패했다. 단체장이 잘못을 했더라도 처벌하기 힘들다. 재판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 소용이 없다. 주민들의 참여를 폭넓게 확대하면 부정부패도 사라질 것이다.

◇VCR질문

▲질문=J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는?

▲박웅두=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전반이 수정돼야 한다. 전남의 특성, 농업의 모습을 담아내야 한다.

▲서범석=고용창출로 전남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자연을 살리면서 추진해야 한다. 자본유치를 위해선 강력한 리더

▲질문=공동혁신도시 발전 방안은?

▲박재순=17개 주요기관이 오게 돼 있다. 교통망구축이 중요하다. 종사하는 직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교육역량을 확대할 것이다.

▲박준영=에너지, 농업, 정보통신, 문화 등의 기관이 들어올 것이다. 생태환경, 교육 중심 도시가 돼야 한다.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함께 들어오도록 광주시장과 같이 노력하겠다.

▲박웅두=관련 연구기관 특히 대학을 이전시켜야 한다. 생태환경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해 나가겠다. 학문과 연구, 산업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해야한다.

▲서범석=공동혁신도시는 참여정부의 결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나주 과학고를 명문학교로 만들겠다. 기존 대학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후보간 정책 토론

▲박준영→서범석=농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박재순=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한다.

▲서범석→박웅두=한·미FTA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나?

▲박웅두=한·미FTA는 장기적 과제다. 지금은 갑자기,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 지금 중단돼야 검토를 할 수 있다.

▲박재순→박웅두=농업수도 건설, 기금 1천억 조성은 불가능하지 않나?

▲박웅두=가능성보다는 해야할 일로 봐야 한다. 시·군과 연계해 공동 분담해야 한다.

▲박재순→박준영=F1 대회와 관련해 도비 부담이 360억인데 가능한지.

▲박준영=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박재순=목포,여수,순천 등이 F1 사업에 반발한 바 있다. F1사업 전면 폐지에 대해 심도 있게 봐야 한다.

/정리=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광주시장 후보 동행 인터뷰 우리당 조영택

"중앙에서 쌓은 경험 토대 광주 새 경제도시 모델로"

지난 20일 오전 광주시 동구 산수시장. 김한길 원내대표와 양형일 의원, 광주 동구청장 후보와 시·구의원 후보들을 앞 세우고 열린우리당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산수동, 지산동 일대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성장했던 조영택이라는 연어가 중앙 무대에 진출, 정부 각 부처에서 활약하며 알이 통통하게 배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쌓은 경험과 비전을 광주에서 산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가 김한길 원내대표 부인 최명길씨(맨왼쪽)와 함께 20일 오전 광주시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에서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무원 출신의 정치 초년병 답지 않게 조영택 후보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다. 민주당 박광태 후보에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초조한 기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양형일 의원은 "조영택 후보의 장점은 화려한 이력 등에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치열하게 덤벼드는 열정에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는 산수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에서도 "광주는 이제 변화해야 하며 변화를 내가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남구 무등시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조 후보는 "광주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경제 문제"라며 "경쟁 후보가 경제시장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지난 4년간 광주 경제는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중앙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문화 행정을 펼쳐 광주를 리모델링 하겠다"며 "무대뽀식으로 일을 벌려놓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광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도시 모델로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정오까지 남광주시장, 산수시장, 무등시장과 운남동 일대를 누빈 조 후보는 광산구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일곡지구, 경신여고 4거리, 충장로 등에서 거리 유세를 펼쳤다. 계속되는 강행군에 피곤할 만도 했지만 오히려 조 후보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관련, 조 후보는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호남고속철도의 경제성 문제가 정부에서 논란이 됐었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경제성만 따지면 국가균형발전은 물건너 간다'며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은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력하게 건의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호남고속철 건설 시대적 과제

R&D 특구 조성 일자리 창출

밤 8시께 들른 조선대학교 장미축제 현장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즉석 토론도 벌였다. 실업 대책을 묻는 대학생에게는 "R&D(연구·개발) 특구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을 유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고, 1분 즉석 연설을 통해 "시장에 당선된다면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수혈로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한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사무실로 돌아간 조 후보가 심야 회의를 끝낸 시간은 밤 11시. 자정 넘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조 후보는 "지금은 인지도 면에서 약간 밀리고 있지만 결국 광주시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이끌 인물을 선택할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